

#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 연구

##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Job Preparation Behavior

고은교\*, 신수경\*\*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Eun-Kyo Ko(silver2419@nambu.ac.kr)\*, Su-Kyung Shin(sskdds@nambu.ac.kr)\*\*

### 요약

본 연구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성이 입증된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 따라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교육적 차원 및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모형에는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취업준비행동 등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안한 세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태도의 순으로 취업준비행동의도를 매개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태도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 중심어 : | 계획된행동이론 | 취업준비행동 | 예비보육교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job preparation behaviors according to the model of planned behavior theory which has proven useful in predicting various behaviors of human beings, and to provide job search guidance for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in the educational dimension and social welfare dimension. The study model included the factors proposed in the planned behavioral theories such as attitude toward job preparation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behavioral inten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mediation of subjective preparation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attitude in that order with regard to job preparation behaviors, and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found to have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this, the theoretical basis for suggesting ways to promote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job preparation behaviors by raising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attitude levels is suggested.

■ keyword : | Theory of Planned Behavior | Job Preparation Behavior | Preservice Childcare Teacher |

\* 본 논문은 2017년 남부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08월 28일

수정일자 : 2017년 09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9월 27일

교신저자 : 신수경, e-mail : sskdds@nambu.ac.kr

## 1. 서론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전체 대학 진학률 중 여학생이 74.5%를 차지하면서 남학생보다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졸 여성 중 경제활동 인구는 74.7%로 조사되어 전통적 경제구조인 남성 중심의 경제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의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 여성 고용률인 57.2%와 비교하면 남성 고용률이 73.4%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고용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통계청(2014)은 보고하고 있다[1]. 여성의 낮은 고용률에 대해 강성호, 김경아와 김기홍(2017)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 경력의 단절, 노동시장 재진입시에 근로조건 악화 등 취업에 대한 현실적 벽이 높음을 그 이유로 제시[2]하였다. 이렇듯 여성의 근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여성에게 대학 진학부터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고[3], 이는 여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진학 시 대부분 여학생으로 구성된 전공 및 학과를 지원하는 동기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이 대부분인 보육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에 비해 높은 연령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 변인을 가지고 있음[4]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은 교육·보육과 관련된 대학의 정규과정을 거치거나 특수목적 기관인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 중 보육교사 교육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불확실한 재정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인식[5]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50% 이상이 보육교사 교육원을 수료한 상태이다. 이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찾는 대부분의 여성 취업희망자가 보육현장에로의 진입을 위한 이력관리나 취업 또는 전직을 목적으로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정규과정과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진입을 대비한 예비보육교사의 경우 자격 취득 이후 어린이집으로 모두 유입 되고 있지는 않는다[6]. 이에 대한 이유로 많은

선행연구들[6-8]은 졸업 후 첫 직장 및 1년의 직업적 지위가 향후 직업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보육현장의 특수성으로 자신의 취업준비행동에 많은 어려움[3]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 및 전문성이[10-11] 취업준비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인식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정규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시작과 동시에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 지도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과정을 통한 자격취득 이외 개인적 전문역량[7]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12]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관심 및 취득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부 연구[3][7][13][14]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 진로 및 취업 고민에 대한 경험,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취업에 대한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요인만을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내면화된 요인에 대해선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의도에 미치는 변인에 관한 [6]의 연구만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적 요인에 따른 예비보육교사의 취업행동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대학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는 면에서 아동 교육·복지적 측면과 대학생의 졸업 후 전문가로서의 사회에 진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학 기간 중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취업준비행동’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을 반영한 용어로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개념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근래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의 움직임은 최근에서야 비로서 시작되어지고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이미 결정한 진로에의 진입을 위해 행하는 구체적인 일련의 행동 즉 취업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주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의 개념으로 일반인의 구직행동과 구분하고 있어[8] 이를 ‘대학생의 구직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을 대학생이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취업 관련 행동으로 진로탐색행동, 진로준비행동 개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더라도 자신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 이외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은 오히려 취업준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적극적인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을 시도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론적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15][16]이나 긍정심리자본[17], 전공만족도[18][19], 진로장벽[20] 또는 셀프리더십[21], 사회적지지[22] 등과 같은 요인들을 취업탐색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엔 인간행동 예측에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하여 제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한계로 밝혀진 인간의 행동이 완전히 자의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보완하여 인간의 행동을 의지적 행동에 지각된 행동통제요인을 추가하여 비의지적 행동까지 범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론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3] 이론이다. 본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완전한 자신의 의지적 통제에 하에 발현된다는 합리적 행동이론[24]의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 예측요인으로 행동의도와 함께 지각된 행동통제를, 행동의도와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제안하는 등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안한 요인 중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및 결과에 대한 예측된 기대로서 이러한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25-28]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의도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 및 자신에게 영향력 있는 주변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용인될 것인가에 관한 기대로서 이러한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의 인과관계는 [29-31] 등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의도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의 수월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서 행동의도와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요인이다. 이러한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및 행동의 인과관계는 [28][32] 등의 국내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의도와 취업준비행동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한 외국연구[9][33]를 비롯한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31]가 있을 뿐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을 변형하여 진로정체성을 독립변수에,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를 매개변수에 추가하거나[34]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제거한 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탐색의도 그리고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모형을 설정하여[35] 검증한 연구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별 변수들의 분석에 따른 논의가 미흡한 시점이기에 계획된 행동이론과 같은 통합적인 이론을 적용한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규명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

성이 입증된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 따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확보한 후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지도 방안이 제시된다면 그들의 대학 졸업 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출발을 돕고자하는 교육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 복지적 차원의 실증적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 1.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취업준비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의 4개의 4년제 대학교의 유아교육과 혹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중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310명을 대상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임의추출법,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자는 연구자 2명으로 각 학교를 방문 한 후 학과 교수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사에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배부 된 설문지에 자가 기입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를 회수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총 310부로 모두 회수하였으나 설문지 2부는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된 설문지는 총 308부이다.

### 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맞도록 선행연구[23][27][28][36]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교육학 교수 2명과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자 1명의 감수 후 설문내용을 확정하였다.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취업준비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각 요인 별 문항 중 태도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일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를 포함한 6문항, 주관적 규범은 ‘나는 보통 어른들(부모님, 선생님, 선배 등)의 권유나 충고를 잘 따르는 편이다.’를 포함한 6문항,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다.’를 포함한 6문항, 행동의도는 ‘나는 취업을 위하여 서적, 팸플릿 등의 자료를 찾아 읽을 것이다.’를 포함한 6문항, 취업행동은 ‘나는 취업을 위하여 서적, 팸플릿 등의 자료를 찾아 읽는다.’를 포함한 6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30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변수는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의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질문에 대한 5점 응답은 질문에 대한 강한 긍정을, 1점 응답은 질문에 대한 강한 부정을 의미하므로, 응답 값의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변수에 대한 긍정성을 나타낸다. 인구 통계학적 항목 2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예비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Cronbach Alpha 계수 산출하였다. 셋째, 설문에 대한 각 문항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기법을 활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 8.0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가설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확장한 계획된 행동이론모형을 적용하여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고자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한 선행연구[28][36]를 근거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따른 행동의도, 지각된 행동통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을 비롯하여 행동의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각 변수들과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본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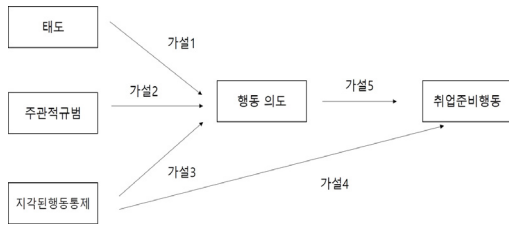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자는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취업준비행동의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성별은 남성 83명(26.9%), 여성 225명(73.1%)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학과 구성원 대부분이 여학생이라는 학과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년은 1학년 56명(18.2%), 2학년 70명(22.7%), 3학년 113명(36.7%), 4학년 69명(22.4%)으로 3학년, 2학년, 4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결과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83	26.9
	여성	225	73.1
학년	1학년	56	18.2
	2학년	70	22.7
	3학년	113	36.7
	4학년	69	22.4
합계		308	100.0

####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값을 산출한 결과, 태도는 .994, 주관적 규범은 .867, 지각된 행동통제는 .910, 행동의도는 .892, 취업준비행동은 .912로 나타나 기준치인 .700 이상으로 모두 나타났다으므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기법을 활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과 공통성은 .500, 요인적재량은 .500이상, 고유값은 1.000, 누적분산은 60.000을 기준으로 볼 때, 30문항이 투입되어 제거된 항목이 없이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취업준비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인적재량은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50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1은 .480, 규범1은 .498로 기준 적재량의 .500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400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고유값은 3.330이고, 누적분산은 70.230으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통성은 모두 기준치(.500) 이상인 .503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KMO 값은 .920, 카이제곱 값은 7258.710, 자유도 값은 435(p=.000)로 나타났으므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구분	태도	행동	통제	규범	의도	공통성	신뢰계수
태도3	.873	.110	.075	.114	.175	.823	.994
태도2	.869	.182	.011	.080	.169	.822	
태도5	.868	.148	.096	.185	.129	.835	
태도6	.860	.123	.159	.176	.162	.837	
태도1	.850	.138	.045	.096	.147	.774	
태도4	.715	.075	.203	.310	.109	.666	
행동4	.155	.786	.166	.143	.148	.712	.912
행동6	.154	.769	.216	.241	.196	.758	
행동5	.119	.759	.173	.184	.221	.703	
행동2	.116	.735	.234	.078	.243	.674	
행동1	.143	.649	.355	.279	.230	.698	
행동3	.133	.639	.336	.216	.267	.657	
통제3	.040	.143	.830	.162	.203	.778	.910
통제4	.147	.203	.823	.097	.165	.776	
통제6	.042	.290	.815	.184	.124	.799	
통제2	.081	.189	.812	.235	.082	.764	
통제5	.033	.281	.795	.247	.126	.789	
통제1	.289	.083	.480	.032	.201	.503	
규범4	.205	.079	.183	.801	.043	.725	.867
규범6	.028	.239	.277	.770	.068	.732	
규범2	.129	.166	.200	.729	.244	.675	
규범5	.149	.247	.198	.679	.189	.619	
규범3	.336	.130	.024	.616	.151	.532	
규범1	.216	.249	.093	.498	.376	.506	
의도2	.214	.217	.244	.074	.749	.720	.892
의도1	.214	.221	.310	.229	.665	.685	
의도3	.139	.198	.280	.298	.653	.652	
의도4	.224	.450	.072	.121	.627	.665	
의도5	.210	.450	.076	.253	.581	.654	
의도6	.267	.463	.175	.164	.574	.673	
고유값	4,988	4,516	4,510	3,726	3,330	KMO=.920 카이제곱=7258,710 자유도=435(p=.000)	
분산	16,627	15,054	15,032	12,419	11,098		
누적분산	16,627	31,681	46,713	59,132	70,230		

###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통해 계획된 행동이론모형을 적용하여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하고자 수립된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는 취업준비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F값은 110.708(p<.001), R2값은 .266, 수정된 R2값은 .263으로 나타났다. 태도는 취업준비행동의도( $\beta=.515$ ,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취업준비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F값은 161.092(p<.001), R2값은 .345, 수정된 R2값은 .343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은 취업준비행동의도( $\beta=.587$ ,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3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F값은 123.938(p<.001), R2값은 .288, 수정된 R2 값은 .286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의도( $\beta=.537$ ,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가설 4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분석결과, F값은 161.399(p<001), R2값은 .345, 수정된 R2 값은 .343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 $\beta=.588,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가설 5 ‘취업준비행동의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결과, F값은 346.590(p<001), R2값은 .531, 수정된 R2 값은 .530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의도는 취업준비행동( $\beta=.729,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가설검증 결과

가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beta$		
1	(상수)	1,842	.184		10,028	.000
	태도	.454	.043	.515	10,522	.000***
2	(상수)	1,716	.163		10,542	.000
	주관적 규범	.578	.046	.587	12,692	.000***
3	(상수)	2,204	.142		15,496	.000
	지각된 행동통제	.461	.041	.537	11,133	.000***
4	(상수)	1,582	.158		10,011	.000
	지각된 행동통제	.584	.046	.588	12,704	.000***
5	(상수)	.370	.173		2,143	.033
	행동의도	.844	.045	.729	18,617	.000***

\*\*\*p<.001

이상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예비보육교사의 취업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로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을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모형의 설정은 타당하였다. 이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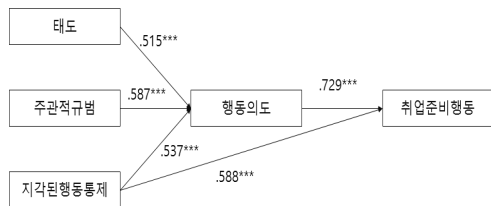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결과

#### IV. 결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예비보육교사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활용이 가능한 모형으로서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독립변수 태도, 주관적 규범은 취업준비행동의도를 매개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는 취업준비행동에 대하여 취업준비행동의도를 매개한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다.

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취업준비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취업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주관적 규범( $\beta=.587, p<001$ ), 지각된 행동통제( $\beta=.537, p<001$ ), 태도( $\beta=.515, p<001$ ) 순으로 취업준비행동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의 인과관계를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29-31]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안된 요인 중 주관적 규범이 취업행동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주관적 규범의 수준을 높여야함을 시사한다. 이는 예비보육교사가 부모님, 교수, 선배, 친구들과 같은 준거인이 되는 주변인이 자신의 취업준비행동을 지지하는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을 때 취업행동의도를 매개하여 취업준비행동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실제로 [22]과 [3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변상황의 이해에 따른 주변의 도움과 지지 등 지인들로부터 각종 제공되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

히 부모님의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의 수월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서 행동의도와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요인인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신이 진로 결정과 관련한 당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감의 정도[38]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31]은 [39]에 의해 제시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행동수행이 쉽거나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통제력 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40]를 의미하기에 계획된 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로 [6]은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의도에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각된 행동통제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의도가 높음을 보고한바 있으며 [41]은 주관적 규범에 해당되는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지각된 행동통제가 취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관해 [42]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해낼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인 자기 효능감과 보육실습과 같은 교사로서의 경험이 취업에 관한 정보처리 과정 중 발생한 자기 판단이 보육교사로서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의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3]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효과를 검증하여 보고함으로써 취업에 관한 진로태도 역시 자기 효능감으로 인해 변화되어질 수 있으며, [44]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취업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나 행동에 대한 태도보다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45][4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이렇듯 개인

이 속한 사회 문화적 상황과 진로에 대한 지각인 주관적 규범에 속하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발달 및 결정에 중요한 역할[47-48]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의 취업행동의도를 높여 취업준비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주관적 규범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둘째,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취업준비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준비행동의도( $\beta=.729, p<.001$ ), 지각된 행동통제( $\beta=.588, p<.001$ ) 순으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준비행동 의도의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동시에 취업준비행동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과 취업준비행동을 매개한 인과성의 규명으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요인은 행동의도라는 [24]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취업준비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의 규명은 인간의 의지적 행동만을 설명하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비의지적 행동까지를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개발한 [49]의 연구 및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한 [5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을 예측하고자 한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은 지지되었다.

취업준비행동은 직업결정의도 및 의지와 함께 직업을 얻기까지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일련의 행동적 절차를 포함한 대학생의 구직행동[8]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예비적인 취업행동과정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개인의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을 비롯하여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의 의지이기에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행동의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예비유아교사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7] 및 자신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얼굴의 메이크업 표현을 통한 메이크업 이미지[51]가 취업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졸업한 현직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준비하는 비율 또한 증가되고 있어



취업에 대한 자신의 의지 즉 행동의도가 높아짐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52]는 전문대 졸업자의 68.7%가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7]의 전문대 유아교육과 졸업생 63.5%가 재학 중에 개인적으로 수료증 및 자격증을 1~3개 취득함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14][44][5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과 취업준비행동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지각된 행동통제가 취업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31]은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탐색행동 예측을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진로탐색의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탐색의도가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에 제시된 제 요인들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정적영향을 규명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태도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예비보육교사의 취업행동의도 및 취업준비행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는 본인의 직접적인 내적동기에 의하여 취업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시도한 다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주변의 권유(勸誘)나 권려(勸勵)에 따라 행동의도를 갖고 행동하게 됨을 반영하는 결과는 주관적 규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취업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를 비롯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비보육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집단으로서의 지지기술향상 및 개입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보육교사가 자신이 취업준비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경우 취업준비행동의도 및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효능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각된 행동통제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자신이 특정행동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지각, 즉 이전 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이후 특정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54]의 주장을 근거하여 볼 때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프로그램은 학년이나 개인의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집단 및 개인프로그램을 단계 별로 운영하여 취업동기를 유발하고 취업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대학과 학과차원에서의 기술적 협치가 촉구되며, 정책적 보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G시의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혹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중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일부 예비보육교사만을 표본으로 하였기에 아동보육과를 포함한 모든 예비보육교사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예측결과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과 비교할 수 있는 아동보육과를 포함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는 타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제 요인 중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선행연구들[28][55]과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향후 취업준비행동이라는 특수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주목한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http://www.kostat.go.kr>, 2013년 인력 실태조사, 2014.
- [2] 강성호, 김경아, 김기홍, “경제활동 유형별 여성의 근로이행 확률과 근로안정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3권, 제2호, pp.181-212, 2017.
- [3] 박지선, 이대균,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유아교사의 어려움,”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0권, 제2호, pp.67-89, 2011.
- [4] 나정, 서문희, 이미화, 김문정, 육아정책개발센터,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자료 심층분

- 석," 육아정책연구소, 2006.
- [5] 신은희,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생의 입학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6] 이경례, 문혁준, "유자녀 보육교사의 일-가정양립 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가족지원과 직장내지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제18권, 제2호, pp.229-249, 2014.
- [7] 유연화, 임경애,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15권, 제1호, pp.461-484, 2011.
- [8] 이재경, 김동일,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제5권, 제4호, pp.993-1016, 2004.
- [9] B. M. Shevlin and R. Millar, "Careereducation: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to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school pupi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6, pp.141-153, 2006.
- [10] 강란혜, "보육교사의 전문성인식과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pp.71-88, 2006.
- [11] 프레이리, 파울로, "기꺼이 가르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Teacher as Cultural Workers-Letters to Those Who Dare Teach), Freire, P.(2000)," *교육문화연구회 역*, 서울; 아침이슬, 2003.
- [12] 박선영, "예비유아교사의 영유아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20권, 제3호, pp.109-133, 2016.
- [13] 손수민,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의 진로 및 취업 고민에 관한 경험,"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p.321-343, 2016.
- [14] 정영희, 양진희,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0권, 제3호, pp.229-248, 2013.
- [15] D. I. Blustein,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o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5, pp.194-203, 1989.
- [16] 강명숙, 방은령,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0권, 제4호, pp.443-467, 2014.
- [17] 김주섭,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6권, 제4호, pp.31-59, 2013.
- [18] 진성희, 성은모,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pp.1-18, 2012.
- [19] 정기옥, 최규일, 배지영,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3권, 제1호, pp.61-68, 2013.
- [20] 백경화, 유경호, "경호학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9권, pp.115-137, 2011.
- [21] 심지연, 이형룡, "관광계열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6호, pp.231-251, 2012.
- [22] 장현지, 홍아정,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제33권, 제2호, pp.17-40, 2014.
- [23]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179-211, 1991.
- [24]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5.
- [25] J. Lin and H. Lu, *Towards an Understanding of Behavioral Intention to Massachusetts: Addison-Wesley*, 2000.

- [26] 유시정, 오정철, "자기효능감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TAM과 TPB의 통합적 접근," 한국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16, 2007.
- [27] 임윤정,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외래관광객의 한류 문화콘텐츠 행동예측모형-한국드라마와 음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8] 고은교, 신수경,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경로행동 연구- 조부모가 생존한 예비보육교사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749-760, 2016.
- [29] K. B. Murry and J. L. Schlacter, "Impact of Service versus Consumer's Assessment of Perceived Risk and Variability,"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8, pp.51-65, 1990.
- [30] 이수광, "호텔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구매의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1권, 제1호, pp.102-118, 1997.
- [31] 조현익,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탐색행동 예측,"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1권, 제4호, pp.321-335, 2012.
- [32] 김정자,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한 실버타운 잠재고객의 구매의도 결정요인*,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3] R. Millar and M. Shevlin, "Predicting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school pupil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2, pp.26-42, 2003.
- [34] 이채창, 박미진,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예측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3호, pp.795-818, 2008.
- [35] 정미예, 이건모,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예측모형,"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0호, pp.125-147, 2009.
- [36] 고은교,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아동의 경로(敬老)행동에 관한 기술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37] 이현진,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8]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 [39]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91-215, 1997.
- [40] 한덕웅, 이민규,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2호, pp.141-158, 2001.
- [41] 김미경, *사회적지지, 학업적자기효능감, 자기결정동기가 자지구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2] 오선영, 김경수, "실습경험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신념과 놀이교수효능감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제17권, 제1호, pp.155-165, 2008.
- [43] 이기학, 이학주,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1호, pp.127-136, 2000.
- [44] 김명옥, 박영숙,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1호, pp.69-90, 2012.
- [45] D. Parker, A. S. R. Manstead, and S. G. Strading,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Role of Personal norm,"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34, pp.127-137, 1995.
- [46] 한덕웅, 한인순, "과속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제2호, pp.39-62, 2001.
- [47]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7권, 제2호, pp.1-26, 2008.

[48] P.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s,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pp.79-122, 1994.

[49] I. Ajzen, "From intention to action: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s to behaviors*," J. Kuhl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1985.

[50] I. Ajzen and T. J. Madden,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2, pp.453-474, 1986.

[51] 신수경,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교사로서의 메이크업이미지와 취업-메이크업 관여도와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4권, 제2호, pp.105-126, 2015.

[52] 박성재, 반정호,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 조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pp.29-50, 2006.

[53] 김평수, 김공, 서석윤, 김영남,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1권, pp.47-71, 2012.

[54] 이민규, 한덕웅, "섭식억제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제2호, pp.173-190, 2001.

[55] 조영아,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성인 근로자의 경력관리행동 발현과정," *진로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pp.224-242, 2017.

저 자 소 개

고 은 교(Eun-Kyo Ko)

정회원



- 1982년 2월 :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교육학사)
- 2006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09년 9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신 수 경(Su-Kyung Shin)

정회원



- 2004년 8월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놀이, 교사교육, 유아전인발달